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93)	봉헌 (216)	성체 (172)	파견 (480)
---------	---------	----------	----------	----------

미사 전례 예절

성당에서의 기본 예절

- 미사 시작 20~30 분 전에는 성당에 도착 하여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여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미사 전의 발성연습과 성가연습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휴대폰을 꺼 놓습니다

-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고 반드시 성당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를 향해 (대)십자 성호를 그은 후 두손(기도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합니다.

- 여러 차례 성당을 드나들 경우, 대부분의 교우 분들은 성수를 처음에 한 번만 찍고 반복해서 안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성수는 성당에 들어갈 때 마다 매번 찍어야 합니다.

성당에서 나갈 때에는 성수를 찍지 않습니다.

- 성당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물이나 음료, 먹거리 등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주임 신부님 또는 지도(담당) 신부님의 허락을 받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25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2/2	이 그레이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12/9	유 요한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2/16	이 마틸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황 스텔라,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276	\$120	\$87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1	손 아놀드/ 손 쟈마	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2/15	박 벨라렛다/ 정 루시아	1/19	김 요아킴/ 고 안나
12/22	이 요한/ 이 마틸다	1/2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12/29	유 요한/ 유 마리아	2/2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LOVE MYSELF

-천향길 베네딕다 수녀 | 성바오로딸수녀회-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 좋아했던 가수는 '이동원'씨입니다. 대부분의 앨범을 소장할 만큼 그 시절, 그의 노래는 저에게 '성사'였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비롯해 정지용 시인의 '향수' 등 아름다운 노랫말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부른 많은 노랫말은 시인들의 시어(詩語)였습니다. 그 가사를 음미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BTS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요즘 방탄소년단(BTS)의 '덕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미(Army)'로 활동하진 않지만 조용하게 열렬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룹명은 물론 가수 이름도 모르는 저에게 그들은 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거듭되는 행보를 접할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멤버들 간의 공동체성, 노랫말 메시지로 '랩'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저에게도 귀를 열게 했습니다.

데뷔한 지 5년 만에 그들이 어떻게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평범한 그들이 뮤지션으로 성장한 성공신화를 보니까 그 중심에 팬들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또래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공감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케이팝 고유 가치를 지키며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리더 김남준의 UN 연설은 훌륭했습니다.

인권 주일인 오늘, 그 내용을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을 폭력으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4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 합창단 성탄 공연 (12/14)

어린이 합창단, 마리아치의 공연이 12월 14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봉사자를 위한 저녁식사 안내

12/23(일) 봉사자를 위한 식사가 오후 5:00에 있습니다.

성탄 전야 미사 및 구유예절 12월 24일

5:30pm 구유예절.

6:00pm 저녁미사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월 25일

9:30am 한/영 미사

대림 특강 안내 12월 16일(일) 오후 5시

LA 마태오 성당의 김지완 마태오 신부님을모시고 대림 특강과 판공성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알리시어 많은 분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로부터 보호하는 LOVE MYSELF 캠페인을 유니세프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으로 말문을 엽니다. "LOVE YOURSELF 앨범을 발매하고, LOVE MYSELF 캠페인을 시작한 후 우린 전 세계 팬들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었다"고요. "우리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게 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거기서 그는 '말의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범한 소년이던 그는 어떻게 해서 꿈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걸 정말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결점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끌어안고 천천히 조금씩 사랑해보려고 한다고요. 저는 방탄소년단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들은 내 안에 열정과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성소가 뭐죠?

성소聖召은 라틴어로 vocatio인데, 어원적으로는 목소리vox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를 소명召命이라고 합니다. 즉 하느님의 부름심,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좁은 뜻으로 수도성소나 사제성소로 국한하여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넓게 보면, '구원자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부르신 것도 성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성소를 받았는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